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수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

# “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기강확립 철저히”

김희수 도의원 “교육감 임기말 발생한 레임덕 징조 행감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잘못된 관행 밝힐 것”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 6)은 8일 전북도의회 제388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 기강 확립 철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되어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라는 점에서 사



쌍이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그간 전북교육청이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파악된 정황상,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회계업무 보조자인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관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자에 불과한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관리자의 업무태만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공금관리 실태와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소홀과 잘못된 관행 등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성경찬 도의원, ‘낙시 관리·산업육성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군)이 전라북도 낙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은 발의한 전북도 낙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무분별한 수산 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건전한 낙시 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 낙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건전한 낙시 문화 조성 및 낙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낙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낙시인 및 낙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낙시터 및 낙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낙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 낙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낙시문화가 정착되고, 도내에서도 관련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문화·예술·체육·안전 등 주요 현안 논의

### 도의회 문건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건설안전위원 및 의정발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여건 개선, 전북도 한옥사업, 전통무예 발전방향 등 문화·예술·체육·안전·건설 분야에 대한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정린 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삼일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개선책을 마련해 의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도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협치를 통한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대학교수·관공협회 회장 등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지난 2020년 7월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

/유호상기자

##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민간영역 효행 장려 실천 체계화

#### 최영규 도의원,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촉구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이 8일 제388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가칭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효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퇴색하는 경로효친사상과 같은 전통적 가치관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는 존속범죄 발생 건수만 봐도 달라진 세태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도내에서만 하더라도 최근 4년 동안 발생한 존속범죄 건수는 170건에 이르렀고 이 중에서 존속살해와 살해미수도 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노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심화, 서구식 개인주의 확산 등 사회적



화적 변동이 효행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촉발했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존속범죄와 같은 비극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영규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일부 효행 장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민관의 협업체계를 조직화하고, 나아가 효 문화 확산과 세대갈등이라는 초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9년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2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는 효문화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 전북 지역개발채권 면제 검토해야

### 진형석 도의원 “리스기업 유치 통한 세수 확충 위해”

전북도가 리스자동차 신규 등록 및 이전 시 필요 한 채권매입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지역개발채권(공채) 할인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미 인천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차종별로 최대 수백만 원씩 세제 혜택을 주면서 공격적으로 취득세 등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비례)은 8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 면제 및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일종의 준조세로 자동차 신규 구매나 이전 등록, 각종 공사도급·물품구매·용역 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최근 리스차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리스차량의 유치가 취득



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타 시·도의 경우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매입면제 및 감경을 시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도에 등록해야 할 신규차량 및 리스차량이 타 시·도로 이탈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 2013년 JB우리캐피탈은 분사를 대구에서 전주로 이전했지만 자동차 리스사업 신차등록에 따른 취득세(도세)는 전북도가 아닌 채권 매입률이 낮은 타시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형석 의원은 “일부 시·도의 공격적인 공채 매입 면제 혜택으로 도내 차량 등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취득세 세수가 많이 주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공채 매입면제 및 리스기업유치 전담조직을 통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취득세 등 세수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